

부산의 투자유치 정책과 성과

2023. 3. 24.

부산경제진흥원장
진 양 현

목 차

- 1 부산의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
- 2 부산의 투자유치 정책과 실적
- 3 경쟁도시 투자유치 현황
- 4 시사점 및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1

부산의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

부산의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

(1) 부산 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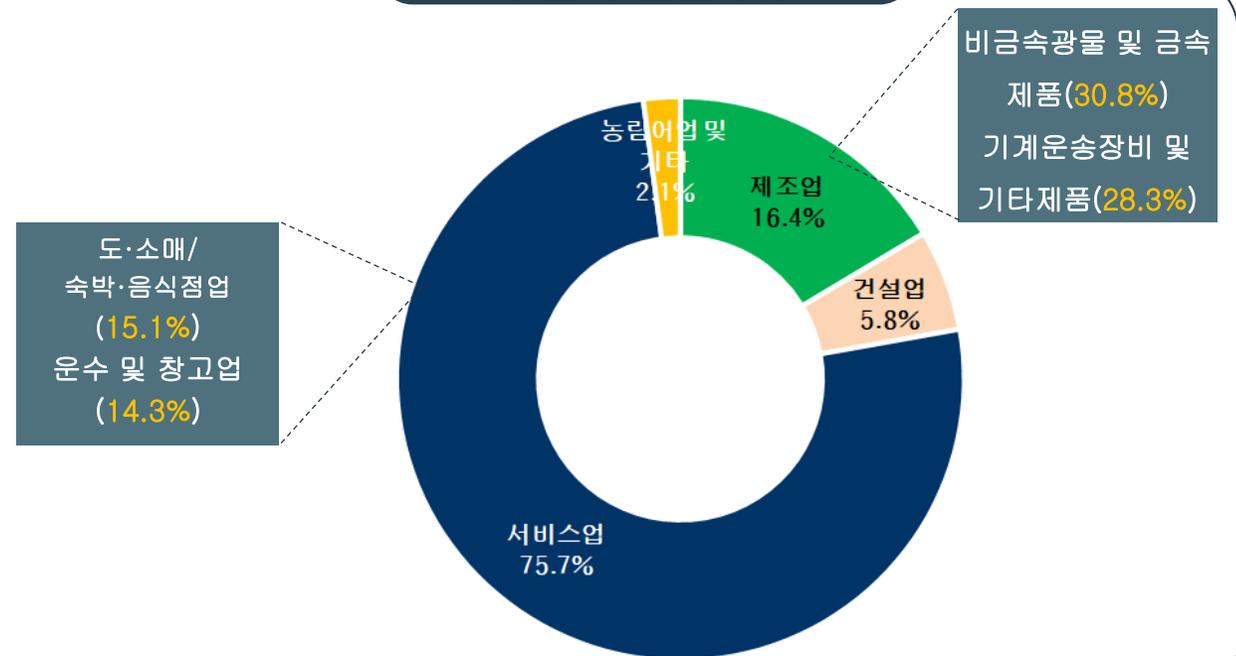
- 부산은 지역내총생산 98.7조원, 사업체수 29.8만개를 보유한 동남경제권 중추 도시
- 부가가치 중 서비스업 75.8% , 제조업 16.4%의 전형적인 서비스업 중심 도시
 - 제조업은 조선기자재 · 자동차 등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금속제품 관련 비중이 높음
 - 서비스업은 도·소매, 숙박 · 음식업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해 경제 위기에 취약

부산의 경제 현황

구분	부산	울산	경남	
인구(만명)	332	111	328	
GRDP(10억원)	98,652	77,683	112,074	
전국대비비중(%)	4.8	3.7	5.4	
1인당GRDP(천원)	29,649	69,133	33,782	
사업체수(개)	298,386	89,907	294,973	
종사자수(명)	1,364,302	493,599	1,335,973	
소상공인	사업체수(개)	204,080	61,682	206,803
	종사자수(명)	382,855	111,204	391,596

자료 : 통계청

부산의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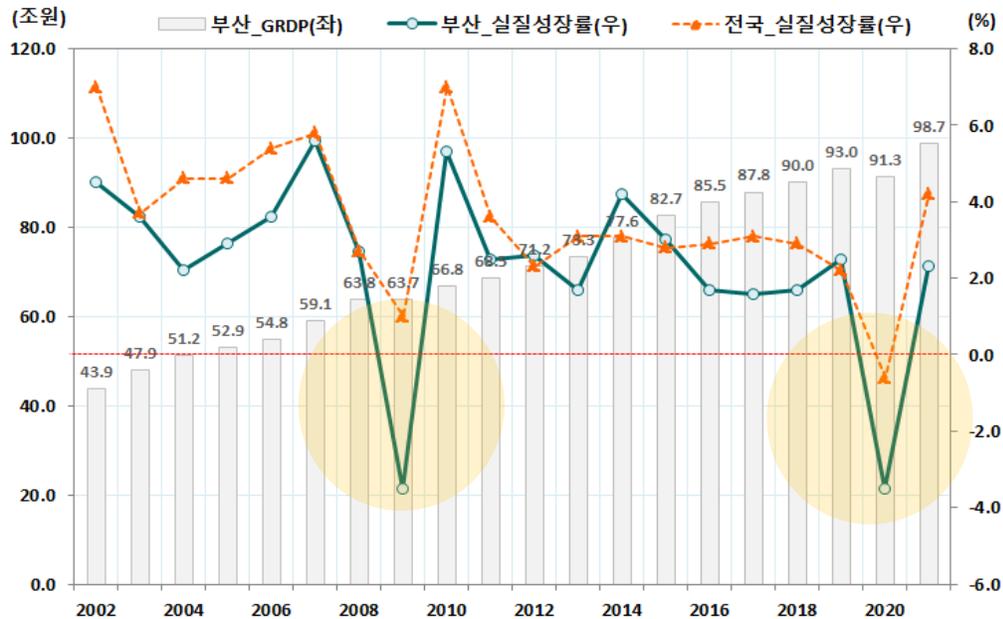


부산의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

(2) GRDP와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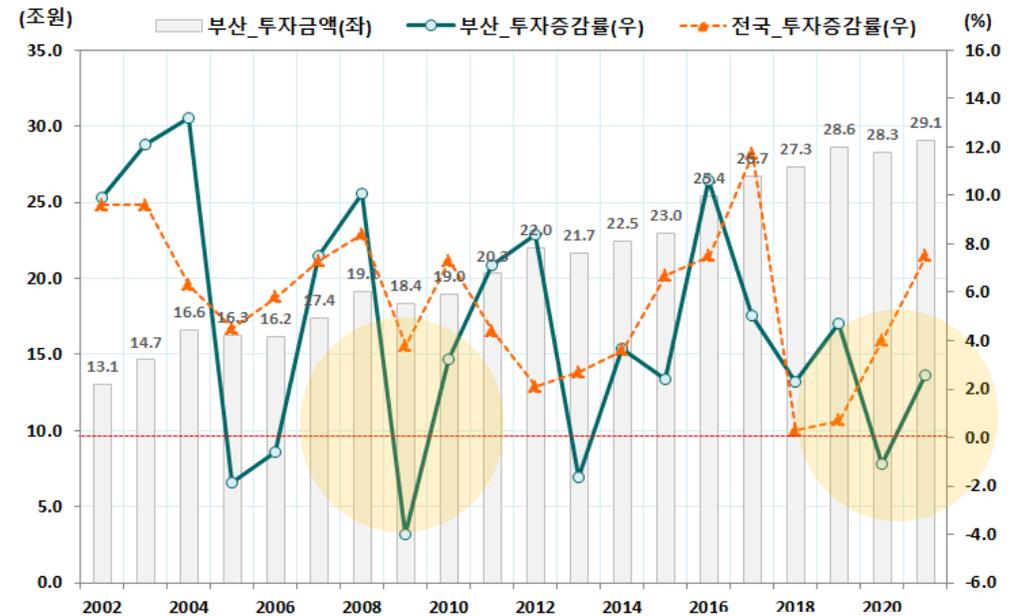
- 부산의 GRDP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4.4% 성장, 전국이 동기간 5.2% 성장한데 반해 느린 성장세
- 투자도 동기간 연평균 성장률 4.3%로 전국 평균 성장률인 5.4% 를 하회하며 성장세는 더욱 둔화
 - 대내외 위기시('09년 글로벌금융위기, '20년 코로나 위기) 부산은 경제성장률과 투자 모두 전국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크게 감소

GRDP 및 실질성장률



자료 : 통계청(지역소득)

투자(총고정자본)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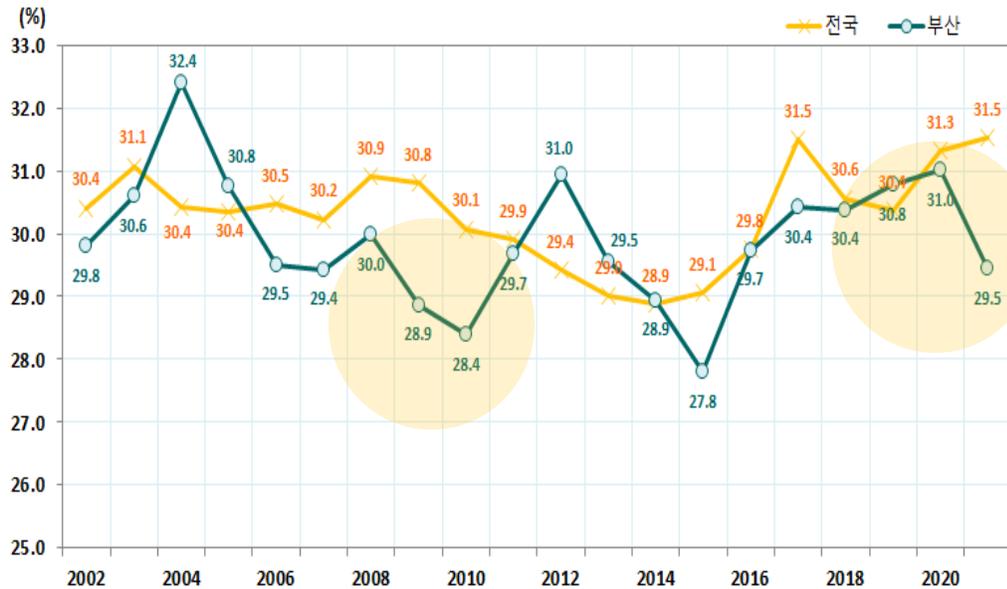


부산의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

(3) GRDP와 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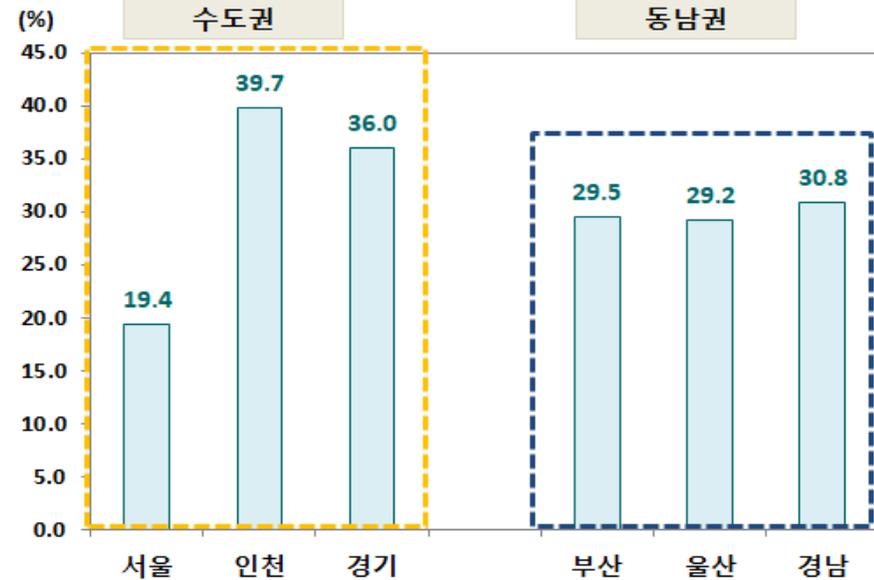
- 부산의 총고정투자율(GRDP 대비 투자비중)은 30%를 하회해 전국평균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
 - 부산은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총고정투자율이 전국과 대조적으로 감소되며 성장잠재력이 약화
- 동남권의 총고정투자율(GRDP 대비 투자비중)은 수도권인 인천(39.7%), 경기(36.0%)대비 낮은 수준

시도별 GRDP대비 투자비중



자료 : 통계청(지역소득)

수도권-동남권 GRDP대비 투자비중(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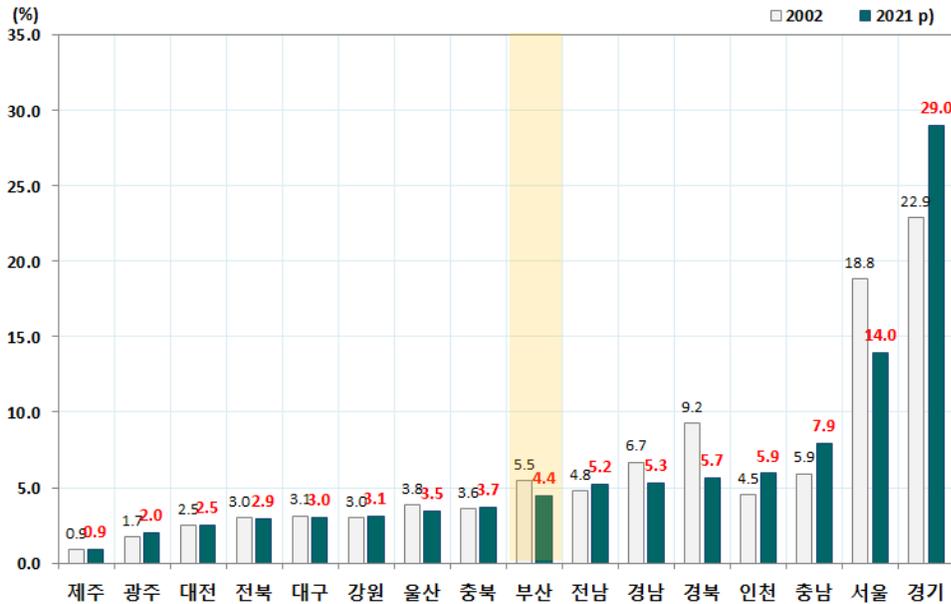


부산의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

(4) 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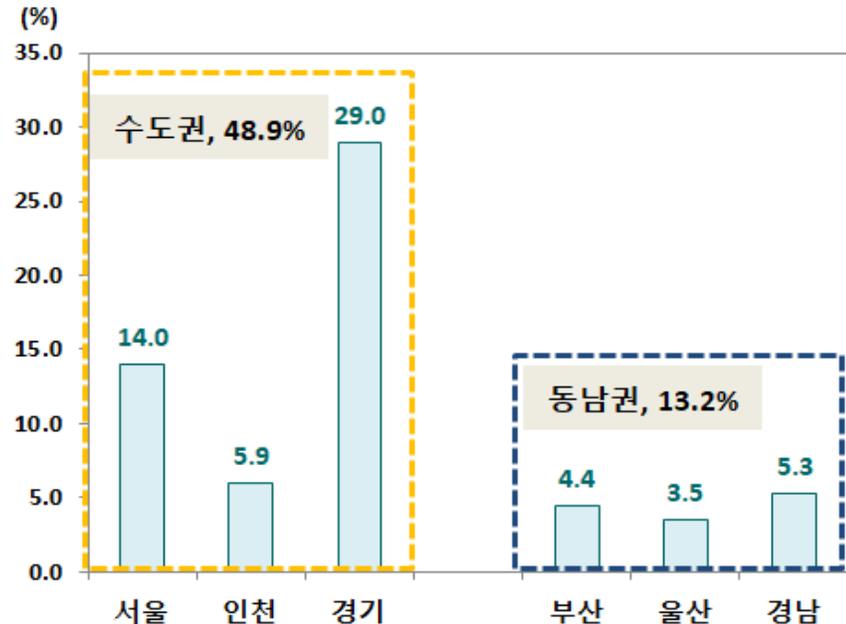
- 부산의 투자는 국가 전체 투자액의 4.4%를 차지해 전국 8위 수준이며 20년전 대비 전국 비중 축소
 - 경기, 충남, 인천 등은 차지 비중이 큰 폭 확대
- 동남권 투자 비중도 13.2%에 불과해 수도권 48.9%와는 큰 격차
 - 동남권인 울산과 경남도 20년전 대비 비중이 축소한 반면 서울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는 비중 확대

시도별 전국 투자비중



자료 : 통계청(지역소득)

수도권-동남권 투자비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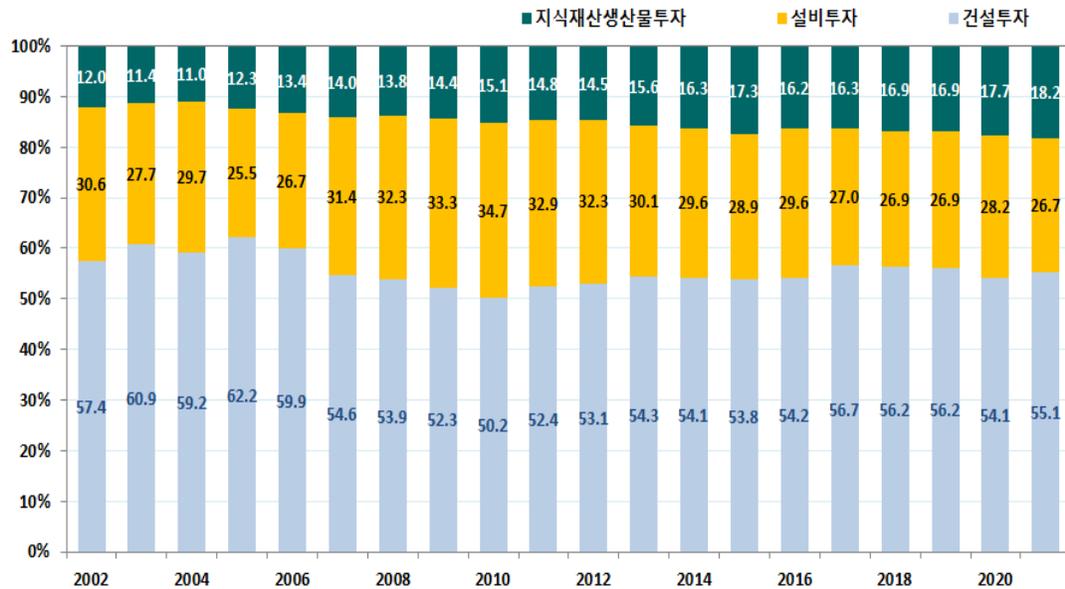


부산의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

(5) 투자 형태별(설비·건설·지식생산물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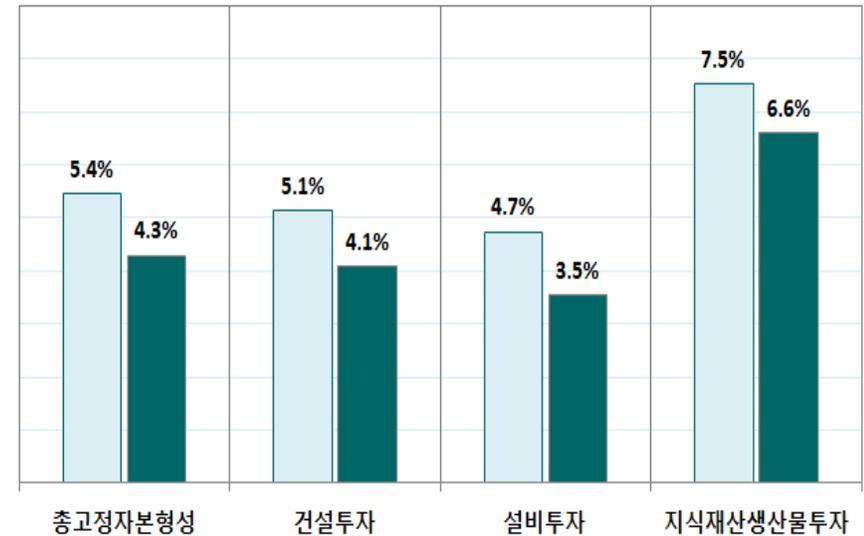
- 투자 형태별로는 설비, 건설 투자는 저조한 반면,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호조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비중 : '02년 12.0% → '21년 18.2%로 확대
 - 설비투자 비중 : '02년 30.6% → '21년 26.7%로 축소 (※ 운수장비 부분 투자둔화)
 - 건설투자 비중 : '02년 57.4% → '21년 55.1%로 축소

부산 자본재형태별 투자금액 추이



자료 : 통계청(지역소득)

자본재형태별 연평균성장률(202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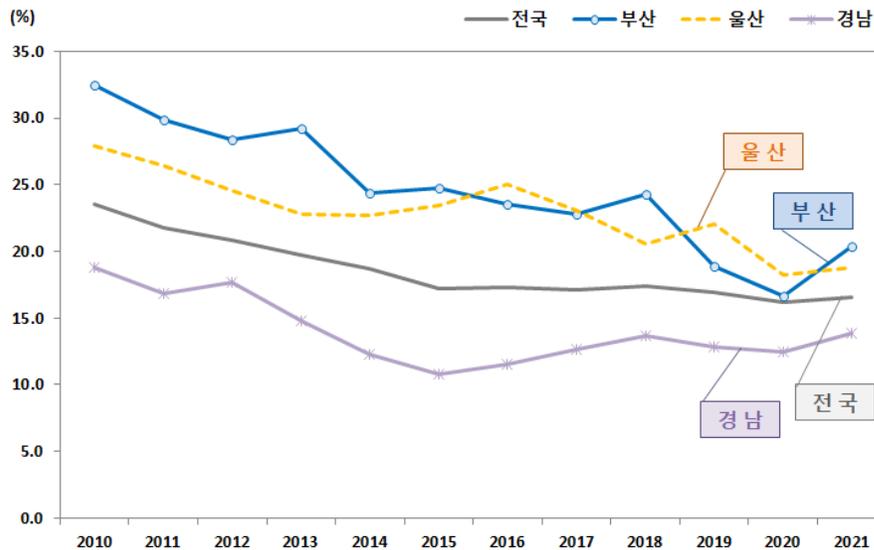


부산의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

(6) 부산市の 투자 예산 비중

- 부산시 예산의 세출은 투자 관련 사업 비중이 20.4%로 전국평균 대비 그 비중이 높으나, 투자가 교통 및 물류에 집중되어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2021년 부산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 12.3조원 중 투자와 관련된 사업에 20.4% 집행, 전국은 16.5%

예산세출 내역 중 투자사업 관련 비중



부산시(본청) 일반회계 집행현황

(단위: %)

분야	비중	분야	비중
일반공공행정	12.7	농림해양수산	1.6
공공질서 및 안전	3.9	산업, 중소기업	4.6
교육	6.6	교통 및 물류	12.6
문화 및 관광	3.5	국토 및 지역개발	3.1
환경보호	2.3	과학기술	0.1
사회복지	43.7	예비비	0.0
보건	1.9	기타	3.3

자료 : 통계청(재정), 지방재정 365, 부산·울산·경남 본청 결산 자료

부산의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

(7) 부산의 주요 기업 현황(2021년)

- 부산의 매출 상위 10대 기업은 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은행, SM상선, HJ중공업 등이 있음
 - 하지만, 매출 최상위 기업인 르노코리아자동차도 전국순위 120위에 그쳐 100위권내 진입 기업은 없는 상황
- 부산의 전국 1000대 기업 내 포함 기업수는 27개사며 이들의 1000대 기업내 매출 비중은 1.2% 에 불과

부산 매출상위 10대기업 현황(2021년)

기업명	부산순위	전국순위	매출액(억원)
르노코리아자동차(주)	1	120	3조 8,599
(주)부산은행	2	189	2조 4,126
에스엠상선(주)	3	229	1조 9,608
(주)에이치제이중공업	4	263	1조 7,058
(주)창신아이엔씨	5	299	1조 4,905
(주)서원유통	6	310	1조 4,560
하이투자증권(주)	7	350	1조 3,149
(주)성우하이텍	8	364	1조 2,592
대한제강(주)	9	397	1조 1,467
디지비생명보험(주)	10	433	1조 374

전국 1000대 기업 시도별 매출액 및 비중

순위	지역	매출액(조원)	기업수(개)	기업당매출액(조원)	비중(%)	순위	지역	매출액(조원)	기업당매출액(조원)	기업수(개)	비중(%)
1	서울	1,682.9	529	3.2	65.4	10	대전	16	16.2	13	0.6
2	경기	508.1	182	2.8	19.7	11	충북	15	14.9	19	0.6
3	충남	69.3	34	2.0	2.7	12	대구	14	14.1	18	0.5
4	인천	66.2	40	1.7	2.6	13	광주	12	12.4	13	0.5
5	경남	47.8	37	1.3	1.9	14	전북	9	9.0	11	0.4
6	울산	44.8	26	1.7	1.7	15	제주	3	1.9	2	0.1
7	경북	30.3	27	1.1	1.2	16	세종	3	2.5	4	0.1
8	부산	30.1	27	1.1	1.2	17	강원	2	1.8	3	0.1
9	전남	21.0	15	1.4	0.8		전국	2574	23.6	1000	100.0

자료 : 부산상공회의소(2021년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부산의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

(참고) 전국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2021년)

부산 매출액 상위 20대 기업 현황(2021)

순위	기업명	업종(대분류)	매출액(백만원)
1	르노코리아자동차(주)	제조업	3,859,868
2	(주)부산은행	금융및보험업	2,412,625
3	에스엠상산(주)	운수및창고업	1,960,821
4	(주)에이치제이중공업	건설업	1,705,790
5	(주)창신아이엔씨	도매및소매업	1,490,535
6	(주)서원유통	도매및소매업	1,456,021
7	하이투자증권(주)	금융및보험업	1,314,917
8	(주)성우하이텍	제조업	1,259,189
9	대한제강(주)	제조업	1,146,677
10	디지털생명보험(주)	금융 및 보험업	1,037,357
11	비엔케이캐피탈(주)	금융 및 보험업	954,585
12	(주)부산도시가스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950,483
13	(주)복산나이스	도매 및 소매업	946,435
14	와이케이스틸(주)	제조업	902,714
15	에스엔티모티브(주)	제조업	899,540
16	현대글로벌서비스(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91,540
17	(주)화승인더스트리	제조업	831,500
18	세운철강(주)	제조업	818,006
19	(주)한국거래소	금융 및 보험업	742,757
20	(주)동성모터스	도매 및 소매업	660,495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업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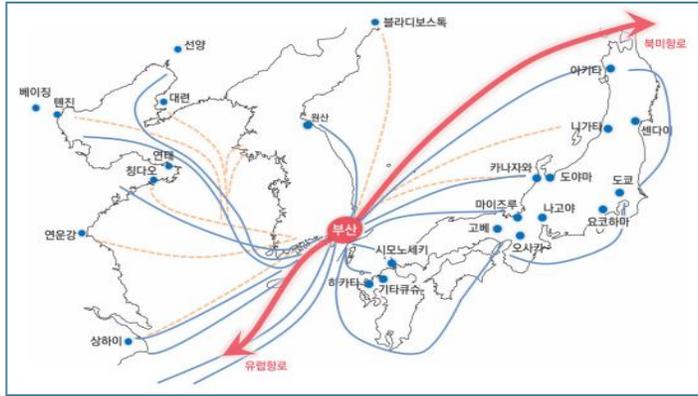
구분	업종	업체수	업체명
제조업	1차금속 및 금속가공	4	대한제강(주), 와이케이스틸(주), 고려제강(주), 세운철강(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3	르노코리아자동차(주), 성우하이텍(주), 에스엔티모티브(주)
	신발 및 피혁	2	(주)창신아이엔씨, (주)화승인더스트리
	기타 기계 및 장비	1	태광후지킨(주)
비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6	(주)부산은행, 비엔케이캐피탈(주), 디지털생명보험(주), 한국거래소(주), 하이투자증권(주),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도매 및 소매업	4	(주)동성모터스, 한성모터스(주), (주)복산나이스, (주)서원유통
	운수 및 창고업	3	셋방(주), 인터지스(주), 에스엠상선(주)
	건설 및 부동산업	2	(주)에이치제이중공업, 엘티상보(주)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	(주)부산도시가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	현대글로벌서비스(주)
합계		27	제조업 : 10개(37.0%) 비제조업 : 17개(63.0%)

자료 : 부산상공회의소(2021년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부산의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

(8) 부산의 투자환경

세계물류 중심지



글로벌 통상도시



금융도시 · 디지털 경제 전환



- 북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해륙통합의 Eurasia Gateway역할
- 동남제조업 경제 벨트 :
 - 부산 (자동차/조선기자재)
 - 울산 (자동차/조선)
 - 경남 (기계/부품/조선)

- ‘글로벌 무역중심, 통상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신흥 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장 中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시 통상영역 확장에도 시너지 기대

- 2009년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2014년 이전공공금융기관 및 지역금융기관 입주
- AI, 메타버스 등 디지털 전환 선도 도시로 부상 중 (*부산, 글로벌 스마트 지수 평가 세계 76개 도시 중 2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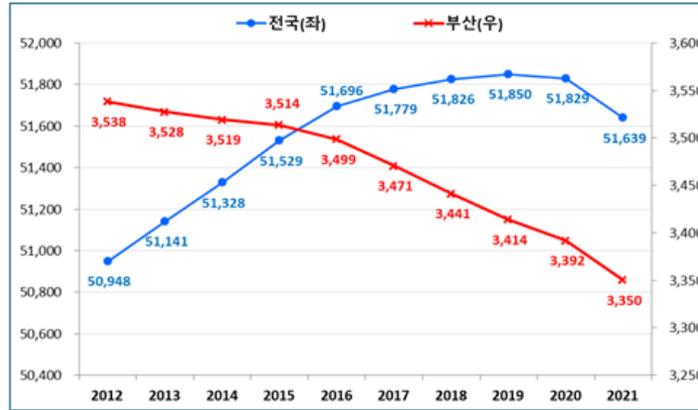
(8) 부산의 투자환경

많은 대학과 지식집단 보유



- 지·산·학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 생태계를 고도화시키는 혁신 클러스트 도시 육성
- 부산소재 대학 수 23개, 대학 재학생 수 245,733명 (17개 시도 중 3위) *서울, 경기, 부산 순

충분한 도시인구 규모



- 부산인구, 지난 10년간 연평균 0.6%씩 빠르게 감소
- 하지만, 두바이 (333만명), 로테르담 (62만명) 등 세계 주요 경쟁도시와 비교해도 충분한 인구 보유

우수한 자연환경과 도시인프라



- 해안·산·강 등 자연환경, 문화와 역사, 더불어 편리한 교통·쇼핑·레저 등 우수한 도시인프라 보유
→ 관광에서 나아가 워케이션 (일work+휴가vacation)에 최적화된 도시 환경

2

부산의 투자유치 정책과 실적

(2-1) 투자유치 정책기조와 방향

(2-2)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 및 실적

(2-3) 국내 투자유치 제도 및 실적

(2-1)

투자유치 정책기조와 방향

(2-1) 투자유치 정책기조와 방향

- (투자정책 기조) 부산시 민선기수별 투자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달리하여 추진
 - 민선 8기에서는 글로벌 허브 도시를 지향하며, 메가 이벤트(2030 세계 박람회, 가덕 신공항) · 디지털 금융 · 창업 · 글로벌 대기업 유치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민선 3~5기 (허남식, 2004.6~2014.6)	민선 6기 (서병수, 2014.7~2018.6)	민선 7기 (오거돈, 2018.7~2020.4)	민선 7~8기 (박형준, 2021.4~)
<p>부산시 자체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 ('14. 1) 으로 투자유치 기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 세계 일류화 ✓ 서부산권 그린벨트 1천만평 해제 ✓ 산업단지 조성(12개 준공) ✓ 도시 브랜드 강화 - APEC 정상회의 개최 	<p>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좋은기업 유치단을 구성하여 기업유치 활동 주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도시 - 좋은 일자리 20만개 창출 ✓ 글로벌 해양도시 ✓ 생활 안전도시 ✓ 균형 발전도시 ✓ 문화 복지도시 	<p>동북아 해양수도를 목표로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 등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 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 혁신도시 - 부산형 일자리 로드맵 ✓ 미래를 여는 스마트 도시 ✓ 건강 안전도시 ✓ 글로벌 품격도시 ✓ 시정 참여도시 	<p>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 및 아시아 창업중심 도시 건설, 메가 이벤트(2030 박람회 등) 연계 투자유치 활동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투자 조례 전부개정 ('22.12) ✓ 시민 행복도시 ✓ 글로벌 허브도시 ✓ 창업 금융도시 ✓ 디지털 혁신도시 ✓ 그린 도시, 문화관광 도시

(2-1) 투자유치 정책기조와 방향

- (산업단지 정책) 국내 산업단지 정책은 산업구조와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
 - (1990~2000년대) 고도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정보통신, 지식서비스와 같은 기술 집약적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입지 형태(도시첨단산단, 클러스터 등)들이 등장
 - (2010~20년대) 경제 성숙기에 신성장·친환경 산업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대규모 입지 조성보다는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입지 환경 조성에 초점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정책
기조

- 입지유형 다양화
- 입지규제 완화
- 구조조정 촉진

- 지식기반 경제 구축 지원
- 전문화된 집적지구
-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 추진

- 과학과 ICT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 융복합, 신성장 동력, 미래 산업 육성

- 산업단지 내 탄소배출 감축
- 첨단산업 육성
- 산업간 융복합 촉진

산업
구조

- 정보 통신산업 활성화
- 반도체, 정밀화학, 자동차 프로그램 개발

- 지식집약적 산업, 미래산업
- 정보통신, 게임, 바이오 산업

- 녹색기술산업
- 첨단융복합산업
-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 첨단융복합산업
-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산업
-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산업

(자료 : 산업입지 연구소, 2022)

(2-1) 투자유치 정책기조와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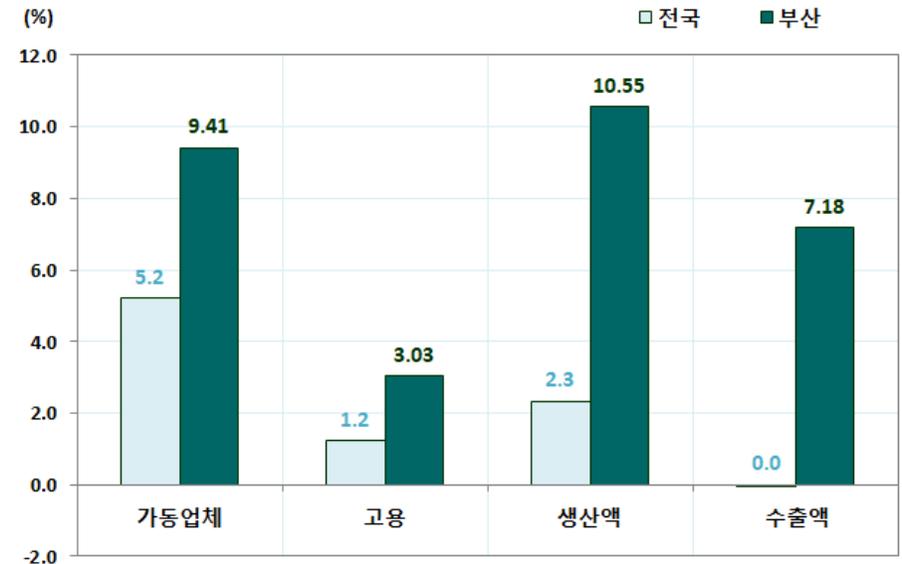
- (산업단지 현황) 부산의 산업단지는 총 27개가 조성완료, 조성 중 9개, 계획 중 6개
 - 이들 산업단지는 지역 제조업 사업체의 24%, 종사자의 48.5%, 생산액의 73.9%, 수출액의 82.9% 차지
- 2014년 대비 산업단지내 가동업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생산·수출 등 주요지표가 전국보다 빠르게 성장, 하지만 20년 이상의 노후 산단이 현재 11개로 산단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 중

부산 산업단지 조성 현황

조성완료 27곳
 조성중 9곳
 계획중 6곳
 4,750만㎡ 면적



산업단지 지표별 연평균성장률(2014~2022)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2)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 및 실적

① 지원제도

- 부산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경제자유구역(FEZ), 외국인투자지역(FIZ)을 중심으로 진행
- 외국인 대상 투자지원제도는 입지·조세(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재정(보조금) 및 행정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외국인 입지 지원제도

구분	경제자유구역(FEZ)	자유무역지역(FTZ) (공항, 항만,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FIZ)	
			단지형	개별형
법적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지정 목적	외자유치, 국가경쟁력강화, 지역균형 발전	외자유치, 국제물류 기지 육성	외자유치, 고도기술이전, 고용창출	
지역 특성	특별행정구역수준 (자치단체조합)	비관세지역	임대단지운영 원칙	개별사업장 단위 지정
지정권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도지사	
관리권자	경제자유구역청	(항만형) 해양수산부 장관 (공항형) 국토교통부 장관 (산단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국가산업단지 : 산업단지관리기관 · 그 외 : 시·도지사	
입주자격	· 외투기업, 국내기업, 국내복귀기업 · 제조업, 물류업, 관광업 · 의료기관, 교육기관, · 외국방송, 금융 기관 등	· 수출주목적 제조업 기업 ·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외국인 투자기업 · 수출입거래 주목적 도매업 · 복합물류관련사업 · 외투기업, 국내기업, 국내복귀기업	외국인투자금액 1억원 이상, 외투자분 30% 이상 · 제조업, 물류업 등 · 계약후 5년내 임대 부지가액1배 이상의 FDI 조건	외투기업 & FDI조건 · 제조업: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 관광업: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R&D: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3년 1척사 10인)
조세감면 요건	· 제조, 관광: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물류, 의료기관: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 R&D: 미화 1백만 달러 이상	· 제조업: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 제조업: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위 지정요건과 동일
감면 대상 조세	· 지방세: 15년 범위 내	· 지방세: 15년 범위 내	· 지방세: 15년 범위 내	· 지방세: 15년 범위 내
관세 감면	자본재 5년간 면제	자본재 5년간 면제	자본재 5년간 면제	관세유보(수입물품, 자본재)

투자인센티브

경제자유구역(FEZ) 인센티브

- 경영환경 개선
- 조세감면 인센티브
- 정주환경 개선
- 개발산업 인센티브

+

자유무역지역(FTZ) 인센티브

- 저렴한 임대료
-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 조세감면 인센티브
- 화물관리 간소화

인센티브 조건	조세	감면 기간	비고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 물류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투자 - 제조업: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투자	취득세	15년간 100%	- 해외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 FTZ 내 사업활동에 대한 VAT 면제 - 특별소비세, 주세 등 기타 간접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100%, 5년간 50%	
	관세(수입자본재)	5년간 100%	

구분	적용대상	임대료	적용기간
부산항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에 따른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물류업·제조업)	m ² 당 월 365원	'23. 1. 1. ~ '24. 12. 31.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m ² 당 월 482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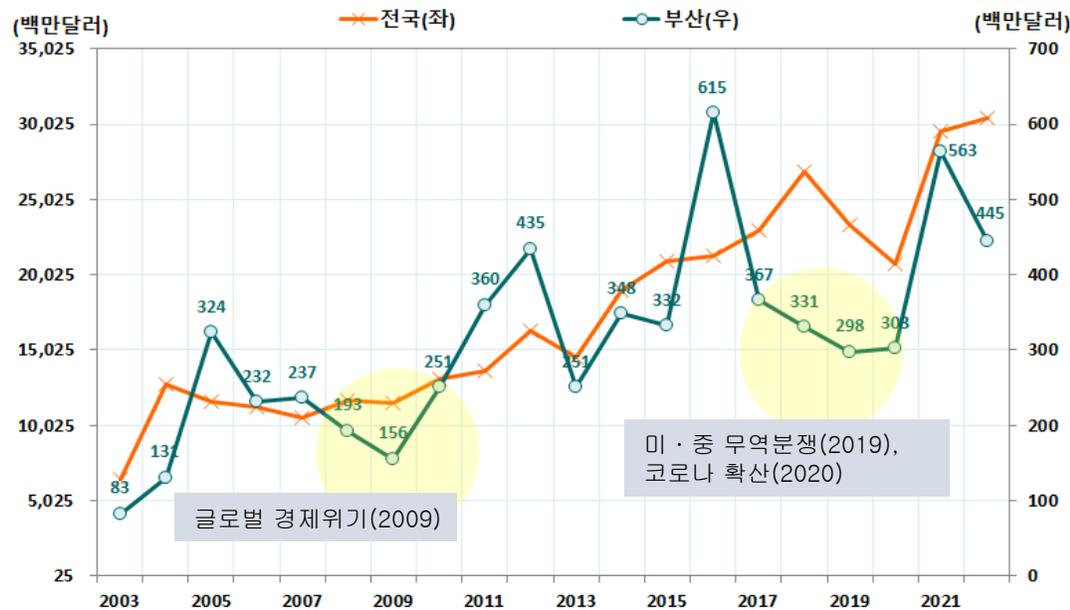
구분	조건	임대료	적용기간
임대료감면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3년간 50%	각 기간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5년간 50%	

(자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② 외국인직접투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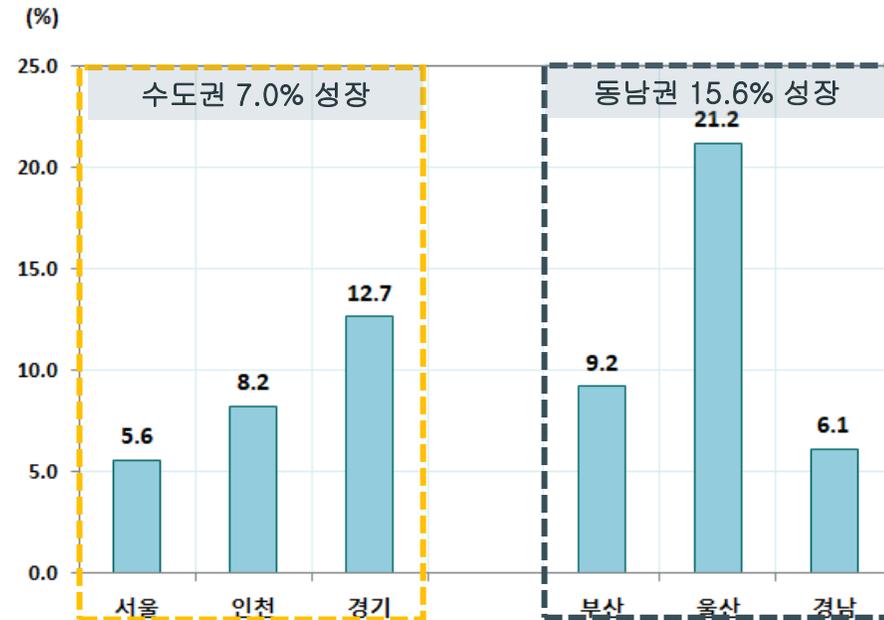
- 부산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년간 연평균 9.2%의 성장세를 보이며 대체로 우상향 추세
- 권역별로 수도권은 연평균성장률 7.0%, 동남권은 15.6%로 동남권의 성장세가 높음
 - 부산·진해자유구역지역내 디지털, 고부가가치 복합물류, 마이크로소프트 등 첨단 미래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유치, 울산의 S-Oil 투자유치(샤힌프로젝트) 등에 기인

부산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 추이



자료 : 산업통상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지자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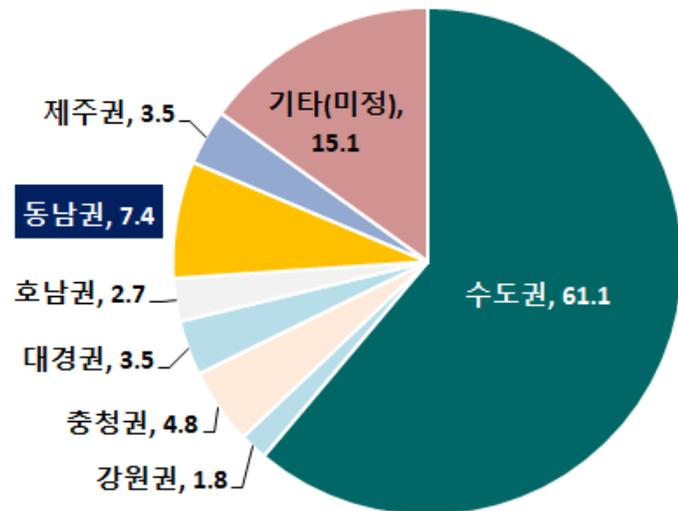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연평균성장률(2003~2022)



③ 지역별 외국인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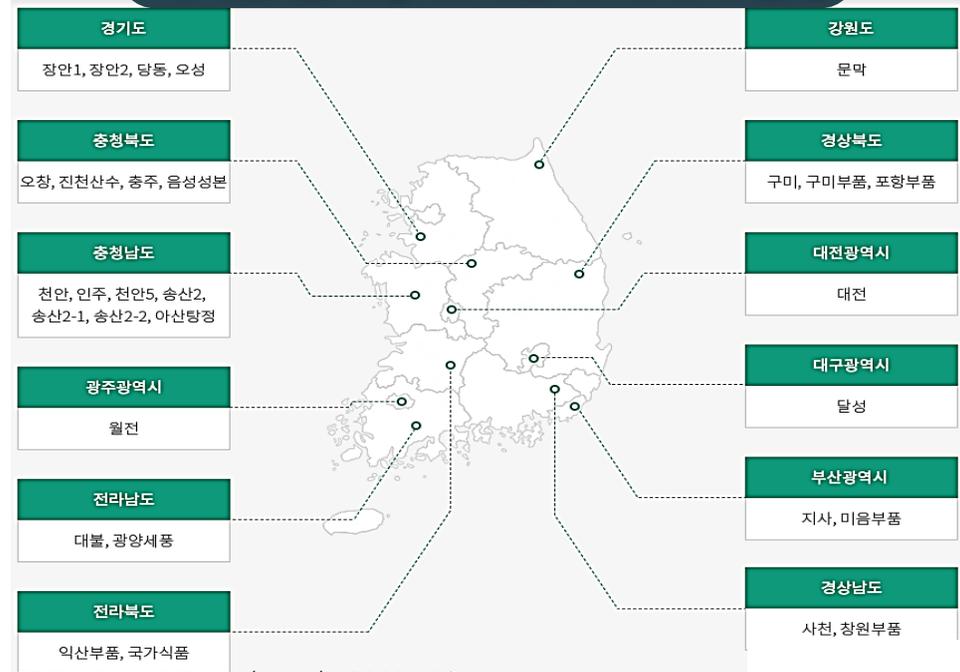
-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별 비중('13~'22누계기준)은 수도권이 61.1%로 여전히 높은 수준, 동남권은 7.4%
 - 외국인직접투자 대부분이 산업 인프라와 인력이 풍부한 수도권에 집중
- 지역별로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이 총 30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부산은 지사, 미음단지 해당

전국대비 권역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10년누계)



자료 : 산업통상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지자체 현황)
2013~2022년(10년간) 지자체별 신고금액 누계기준

지역별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현황



⑤ 산업별 외국인투자 현황

- 부산은 제조업 중 운송용기계, 화공, 전기·전자, 기계장비 의료정밀 분야 투자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정보통신, 금융·보험, 도·소매 등의 비중이 높음
- (대표사례) 전기·전자 업종 사례로 태광후지킨이 대규모 증설 투자, 싱가포르계 바이오제약 기업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기업이 R&D센터 건립 등

부산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2021)

제조업 내 비중(%)		서비스업 내 비중(%)	
운송용기계	23.5	정보통신	40.9
화공	22.4	금융·보험	26.6
전기·전자	19.1	도·소매(유통)	10.8
기계장비·의료정밀	14.2	부동산	7.2
식품	12.6	사업지원·임대	6.4
금속·금속가공제품	4.1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3.7
비금속광물제품	1.5	여가·스포츠·오락	2.5
섬유·직물·의류	1.2	운수·창고	0.8
제지·목재	1.0	숙박·음식점	0.7
의약	1.0	공공·기타서비스	0.2
기타제조	0.4		

자료 : 부산연구원, 부산의 외국인 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방안(2022) 중 부산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자료(2021년 FDI 도착금액,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 재가공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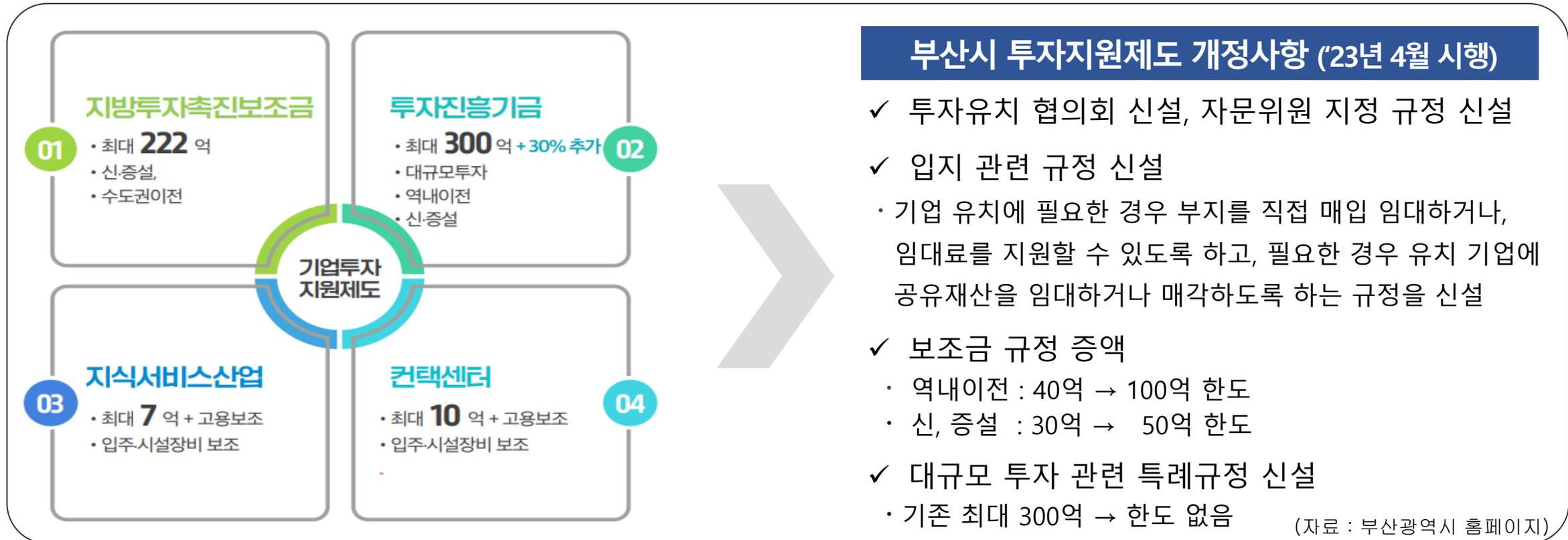
- **태광후지킨** 반도체 및 산업용 밸브 제조 관련 화전 외투용 지 내 잔여부지 총 557억원 증액 투자로 공장 건립 예정
-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향후 5년간 약 1천680억원을 투자해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4만5천㎡ 규모 R&D센터를 건립해 항체치료제와 신종감염병 백신 개발 추진
- **원아시아 네트워크** 홍콩의 데이터 전문기업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 건립을 통해 향후 고용 200명, 6,600억 원 투자 효과 기대

(2-3)

국내 투자유치 제도 및 실적

① 지원제도

- 국내기업 대상 투자지원은 크게 투자진흥기금(시비 100%),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시비 65:35)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 최근 부산시는 투자지원제도 개정을 통해 역내이전 및 신·증설 관련 보조금 증액,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한도를 없애는 등 타시도 대비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① 지원제도 (상세내용)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구분	지원자격	지원한도	비 고
신설·증설	- 기존 사업장 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 10명 이상	222억	설비투자보조 (균형발전지역구분에 따라 비율 상이) * 고용인센티브 * 지역특성화업종 설비 추가 보조
수도권이전	- 기존사업장 고용인원 30명 이상 - 이전 후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30명 이상 - 기존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 시 기존 사업장 폐쇄	222억	설비투자보조, 입지투자보조 (균형발전지역구분에 따라 비율 상이) * 고용인센티브 * 지역특성화업종 설비 추가 보조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범위

지원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상위지역 (강서구, 기장군, 해운대구)	입지	-	-	토지매입비의 9%이내
	설비	설비투자액의 3%이내	설비투자액의 5%이내	설비투자액의 7%이내
균형발전중위지역 (금정구,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입지	-	토지매입비의 10%이내	토지매입비의 30%이내
	설비	설비투자액의 5%이내	설비투자액의 7%이내	설비투자액의 9%이내
균형발전하위지역 (동구, 서구, 영도구)	입지	-	토지매입비의 20%이내	토지매입비의 40%이내
	설비	설비투자액의 8%이내	설비투자액의 11%이내	설비투자액의 14%이내

※ 신규고용인센티브 : 신규고용인원에 따라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최대 10% 가산

※ 지역특성화업종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가산

※ 지원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 제외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유흥, 부동산, 건설업, 소비서비스업, 무점포판매, 해운중개업)


(부산시) 투자진흥기금

지원구분	지원자격	지원한도	비 고
대규모투자	- 투자금액 2,000억 이상 또는 신규고용인원 1,000명 이상	300억	설비투자보조금(14%) * 고용보조
	- 투자금액 500억 이상 또는 신규고용인원 300명 이상	100억	설비투자보조금(14%) 또는 입지보조(30%) * 고용보조
역내이전	- 기존사업장 고용인원 30명 이상 - 이전 후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30명 이상	40억	설비투자보조(14%) & 입지보조(30%) * 고용보조
신설·증설	- 기존 사업장 고용인원 2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 20명 이상	30억	설비투자보조(14%) * 고용보조
지식서비스산업	- 시역 안으로 이전 또는 신·증설 경우,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7억	입주보조(매입 15%, 2년임대 50%) & 시설장비보조(30%) * 고용보조(한도없음)
컨택센터	- 시역 안으로 이전 또는 신·증설 경우,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10억	입주보조(매입 15%, 1년임대 50%), & 시설장비보조(30%) * 고용보조(한도없음)

※ 각 지원한도에서 30% 가산 인센티브 가능

※ 신규고용인센티브 : 신규고용인원에 따라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최대 5% 가산

※ 제외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유흥, 부동산, 건설업, 소비서비스업, 무점포판매, 해운중개업)

② 유치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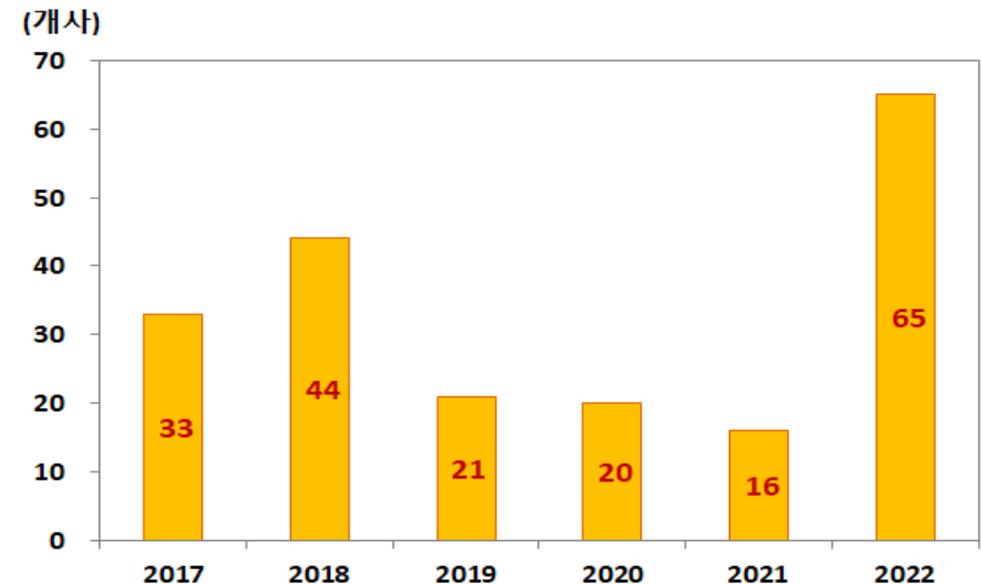
- 부산의 최근 6년간 국내투자유치 실적은 연평균 50.8%로 크게 성장, 동기간 고용인원도 연평균 22% 성장
- 2022년 국내 유치기업수도 최근 6년 이내 가장 많은 65개사를 유치
 -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철강), 원스(정보기술), 아비바(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전기차 핵심부품 클러스터에 가유, 삼영엠티, 리하온 등 입주 (코렌스EM 미음산단 입주)

부산의 국내 투자유치 실적



(자료 : 부산광역시 내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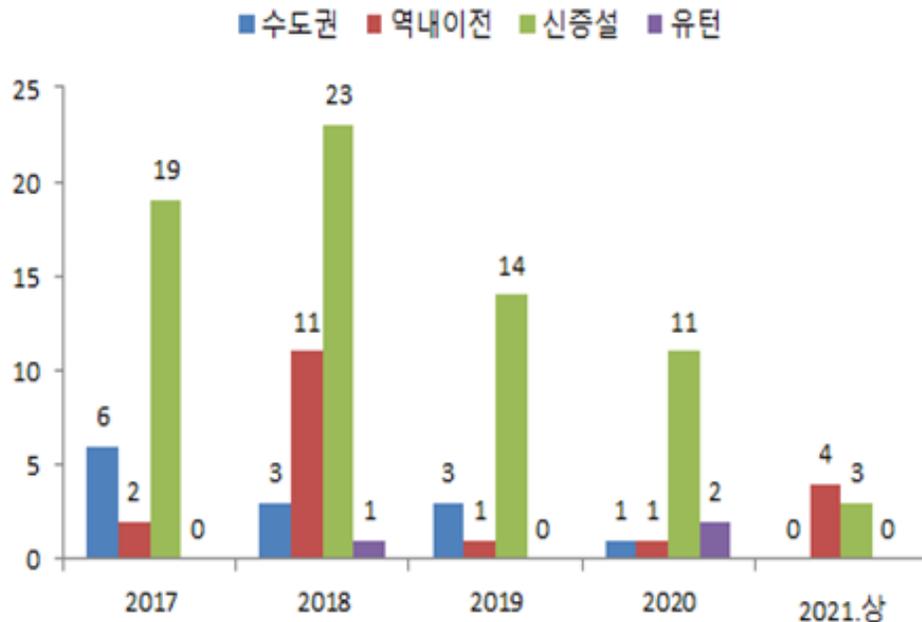
부산 국내 유치 기업수



③ 유형별 유치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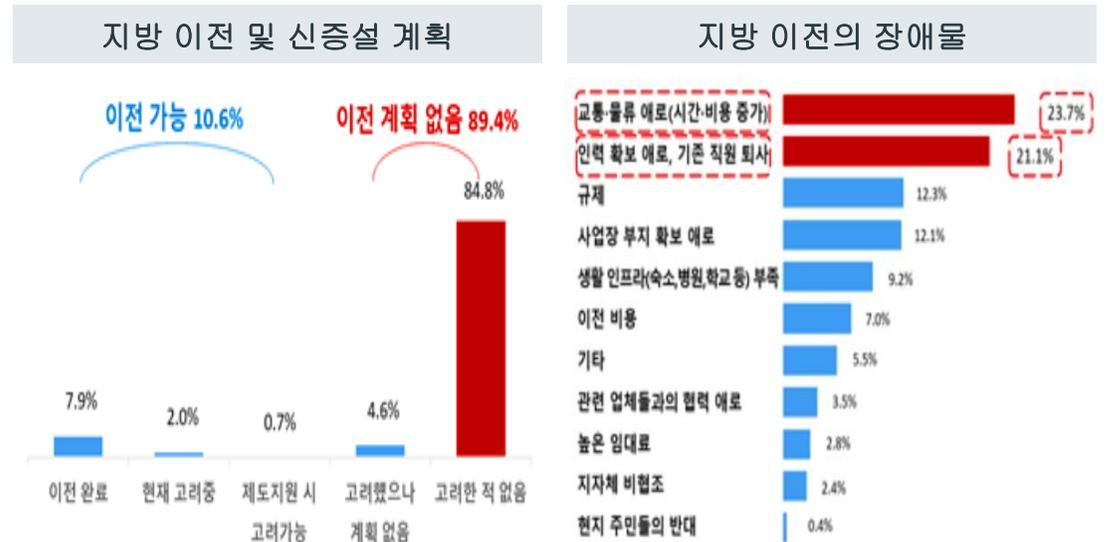
- 부산의 최근 국내 기업투자 유치는 주로 신·증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역내이전, 수도권 유치, 유턴 기업 순
 - 부산시는 역내이전, 신·증설관련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있음
 - 다만, 수도권 기업 유치는 부족 → 인프라·우수 인재 고용 등을 이유로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은 여전히 저조

부산 국내기업 유치 유형별 현황



(자료 : 부산시 비상경제대책회의 자료(기업유치활성화 방안)내 인용

매출 1000대기업의 지방이전 계획조사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 사업장 신증설 의견조사 (2022.5월)

④ 산업별 유치 실적 및 주요 성과

- 부산의 최근('15~'21년.상) 유치 실적을 보면 제조업 비중이 50.3%,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32% 수준
 - 최근 쿠팡, SSG닷컴, 롯데쇼핑 등 물류 대기업 투자유치 성과가 두드러지며 그 외 금속, 철강, 화장품 등 투자유치 성과

부산의 산업별 기업 유치 실적

* 유치 현황('17~'21.상) 기준

	유치기업수 (개사)	비중 (%)
제조업	71	50.3
지식서비스업	45	32.0
기타서비스업	25	17.7
합 계	141	100.0

(자료 : 부산시 비상경제대책회의 자료(기업유치활성화 방안)내 인용)

부산의 주요 국내기업 유치 성과

기업명	업종	투자계획	
		규모(억원)	고용(명)
롯데쇼핑	전자상거래, 물류운송업	2,000	2,000
쿠팡	“	2,200	3,000
SSG닷컴	“	2,200	1,300
비투지코리아	비디오 및 기타영상기기제조업	334	60
동인하이텍	그외금속압형제품제조업	186	145
금강튜브텍	탭밸브 및 유사장치제조업	118	64
아이씨맥스	도장 및 피막처리업	86	48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철강 제조	1,000	300
스킨메드	화장품 신소재 개발·판매	1,800	130

(자료 : 부산광역시 시보 자료 및 보도자료 인용)

(참고) 전국 시도별 주요 투자 보조금 지원제도 현황('22. 12월 기준)

시도명	지원대상(투자금액,고용인원)	지원기준	지급한도
부산	○ 신증설 기업(20억& 20명)	○ 설비 최대 20%	50억
	○ 역내이전(20억&20명), 지역기업(2배이상 확장)	○ 부지 최대 20%, 설비 최대 20%	100억
	○ 지식서비스기업, 컨택센터	○ 이전, 신증설 지원 기준에 맞춰 지급	한도 없음
	○ 대규모 투자(2,000억이상 투자) ○ 녹색산업 투자기업	○ 협의회 심의 후 결정	한도 없음
경남	○ 이전 및 신증설(20억or10명)	○ 부지50%, 설비 2%(10억 초과분)	5억 / 2억
	○ 대규모 투자(500억or150명)	○ 설비 10%	100억
울산	○ 이전 및 신증설(10억&20명)	○ 부지20%, 설비 20%(20억 / 10억 초과분)	30억 / 30억
	○ 지역기업(부지초과, 신규구입장비)		
	○ 창업기업(5억) 및 연구소 등	-	1억
	○ 대규모 투자(500억& 300명)	○ 부지매입또는설비투자비의 20% 범위 내	미규정 (위원회심의)
대구	○ 신·증설/지역기업(100억&10%이상 고용증가)	○ 총투자금액의 10%	50억
	○ 이전(20억or30명)		
	○ 대규모 투자 (500억or300명)	○ 총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미규정 (의회동의)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참고) 전국 시도별 주요 투자 보조금 지원제도 현황('22. 12월 기준)

시도명	지원대상(투자금액,고용인원)	지원기준	지급한도
경북	○ 이전(도 내로 이전하는 기업)	○ 투자금액의 20%	50억
	○ 신증설(20억&신규20명)	○ 투자금액의 20%	50억
	○ 도내이전(100억&신규50명)	-	-
	○ 대규모 투자(1,000억or200명)	○ 부지, 설비투자비	100억 (협의회 심의)
인천	○ 이전(50억) 및 신증설(300억&50명)	○ 투자금액의 2% 범위내	15억/10억
	○ 대규모 투자(1,000억&300명)	○ 지방소득세 납부액의 20% 범위 내	(2년간)
대전	○ 이전 및 신증설(10억and20명)	○ 부지30%, 설비14%	100억
	○ 지역기업(부지, 건축연면적 초과투자)		
	○ 창업기업(5억) 및 연구소	-	5억
	○ 대규모 투자(1,000억&300명)	○ 특별지원	-
충북	○ 이전(10명) 및 신증설(상시10명&신규10명)	○ 부지 10%(10억 초과분), 설비 10%(10억초과분)	100억
	○ 신설법인(투자금액 200억초과 시고용 10명 미만이라도 지원)		
	○ 대규모 투자(1,000억, 200명)	○ 특별지원	미규정 (위원회심의)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경기도는 투자유치관련 조례가 없으며, 인천의 경우 조례는 있으나 국비 지원이 없음

3

경쟁도시 투자유치 현황

<그린필드 FDI 성과지수>

- “Greenfield FDI Performance Index”는 경제규모(GDP) 대비 그린필드 분야 FDI 실적을 점수화 하여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표로,
 - 2021년 경우 경쟁도시인 UAE, Singapore가 상위권을 차지
 -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투자하는 그린필드 FDI는 투자수익 회수까지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투자 대상국의 사업환경, 투자정책 및 제도가 큰 결정 요인으로 작용

2021 Greenfield FDI Performance Index

RANK	COUNTRY	GFDI PI SCORE	FDI PROJECTS CHANGE 2021/20
1	Costa Rica	15.40	+41
2	UAE	8.89	+153
3	North Macedonia	8.78	+14
4	Singapore	6.25	+56
5	Lithuania	5.69	-11
6	Malta	5.42	+7
7	Serbia	4.89	+5
8	Poland	4.51	+43
9	Hungary	4.31	+25
10	Estonia	3.95	-6

UAE, 싱가포르 '20년 대비 높은 FDI 성장률 기록

- UAE, 싱가포르는 매년 글로벌 컨설팅 기업 커니(Kearney)에서 발표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신뢰지수에서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 또한, 매력적인 외국인투자 유인 제도를 통해서 매년 큰 규모의 FDI를 유치 하고 있음

(자료 : 2021 Greenfield FDI Performance Index)

(1) 두바이

- 두바이는 1985년 제벨알리 자유무역지대를 시작으로 항만, 항공 등 중동의 물류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이후 20여개 이상의 기능별 경제자유구역을 혁신적으로 건설하여 FDI를 유치
 - 오일머니 중심의 대다수 중동지역과 달리, 두바이는 원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1% 미만임
- 이후 인공섬 프로젝트, 부르즈칼리파 등 상상력을 극대화한 세계 최고, 최대, 최초의 수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전세계 FDI를 의욕적으로 유치
- 두바이의 FDI는 물류, 관광을 넘어 금융, 스타트업으로 확대되고 있음

(물류기반 조성)



- 1959년 두바이 국제공항, 1972년 라쉬드항. **1979년 제벨알리항** (모래를 파내고 지은 세계 최대의 인공항구) 개항, 2010년 알막툼국제공항 개항, 2023년 알막툼국제공항 확장공사 마무리
- UAE 전역의 11개 도시를 연결하는 에티하드 레일 개통 준비중

(입지 조성)



- 1985년 UAE 최초의 자유무역지대 제벨알리 자유무역지대 완공
 - 제벨알리 자유무역지대는 120개국 7천여개가 넘는 업체가 입주해 14만 여명의 고용을 창출 중
 -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서도 100개 이상이 입주해 있으며, 두바이 GDP 기여율은 2018년 기준 23.8%에 달할 정도
- 이외에도 두바이공항 자유무역지대, 두바이 복합상품센터 등 두바이 전역에 **20여개** 운영

(관광, 마이스 도시 조성 박차)



- 상상력의 극치라 불리는 인공섬 프로젝트를 비롯해, 리조트, 쇼핑몰, 테마파크를 연이어 건설하였으며,
- **2020 두바이 세계 박람회** 개최를 통해 세계적인 관광, 마이스 도시로 발돋움 함



<부르즈 할리파>



<두바이 국제공항>



<두바이 세계박람회장 전경>

(자료 : 코트라 무역관)

(1) 두바이

- 두바이가 중동지역의 최대 FDI 투자처로 평가받는 이유는 기업 친화적인 사업환경, 항공과 해상물류 네트워크로 인한 접근성 및 고정환율제 등 자유롭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임
 - 2021년 UAE는 207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는 2017년 대비 두배가량 상승한 수치임
- 최근 UAE는 건국 50주년을 기념하여 “프로젝트50”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사우디의 네옴시티 건설을 염두에 두고 우수인력과 해외투자를 확보하기 위한 사우디와의 경쟁구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최근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단위: S\$ 백만,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유입액	10,354	2.34	10,385	0.3	17,875	41.9	19,884	10.1	20,667	3.79

(자료 : UNCATD)

투자유치 관련 정책 및 동향

✓ 조세제도 및 투자 지분율

- 그간 소득세와 법인세 제도가 없어 큰 장점으로 부각되었으나, 2023년 6월부터 법인세가 9% 수준으로 부과 예정
- '20. 11월 부 외국인 지분율 49%로 제한 철폐

✓ 최근 동향

- 우수인력과 해외 투자유치를 두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치열한 경쟁 중
- 2021년 UAE 건국 50주년 기념 “프로젝트 50” 계획 발표
 - 50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수인재확보, 해외투자 유치, 첨단기술 지원, 산업 체질 개선 등이 포함

(자료 : 코트라 무역관)

(2)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국가 전체가 자유무역지역이며, 내·외국기업 무차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세기까지는 물류, 금융 중심의 투자육성 정책을, 최근에는 Edu- Hub 및 Entertainment Hub 등 기존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
 - 싱가포르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방대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부분 비공개로 지원이 되고 있어, 규모와 익명성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2020년 싱가포르는 214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고, 2017년 대비 36% 상승하는 등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최근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단위: S\$ 백만, %)

구분	2017		2018		2019		2020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유입액	15,700	15.9	17,300	10.5	19,200	11.1	21,400	11.3

(자료 : 싱가포르 통계청)

투자유치 관련 정책 및 동향

- ✓ **조세감면 및 제조설비 지원**
 - 기본 5년 동안 법인세 면제 혹은 5~10% 감면
 - 첨단 산업군의 제조설비 관련 지출에 대해 환급 제공
- ✓ **기타 동향**
 - 투자유치를 고부가가치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
 - 본사이전, 아시아총괄본부 이전, 싱가포르 지점 등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보조금 정책 시행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2022)

(2) 싱가포르

- 싱가폴은 해외투자유치기업이지만, 고향에서와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외투자유치 캐치프레이즈로 “host to home”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 및 의지로 싱가폴르는 미국 신시네티에 본사를 둔 P&G 미용부문 글로벌 본사 유치 성공

미국 다국적기업 P&G 본사 유치 성공사례

✓ P&G 사는 미국 신시네티에 본사를 둔 글로벌 다국적기업

- 비누와 양초 판매를 시작으로 탄생한 P&G는 세계 최대 생활용품 제조업체이며,
 - * 팬틴 (샴푸), 타이드 (세제), 페브리즈 등
- 전세계 180여 개국에서 총 65개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미국 가정의 95 퍼센트 이상이 P&G 상품을 사용함

✓ 싱가폴르는 P&G에 대한 맞춤형 지원전략을 통해 유치 성공

- P&G 사업을 분석해 싱가폴르 內 어떤 기술과 협력하면 좋고, 신시장 개척도 가능할지 등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냄
- 이러한 목표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정책(인센티브, 입지 등)과 더불어 언어 · 인재 · 아시아 미용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을 토대로 P&G는 본사를 싱가폴르로 이전하게 됨



<P&G 아시아퍼시픽 본사 싱가폴르 오피스>

(자료 : 울산연구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편방안 연구)

(3) 홍콩

- 홍콩은 싱가포르와 유사하게 국가 전체를 무관세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내·외국기업 무차별 정책과 높은 수준의 기업친화 환경을 바탕으로 FDI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 특히,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해외직접투자(ODI)의 63%가 홍콩을 경유해서 발생하고 있음
- 다만, 최근 중국의 홍콩 내국화 정책 추진으로 해외투자 유치는 한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

투자유치 관련 정책 및 동향

✓ 조세제도

- 내외국기업 동일한 조세제도를 운영중이며, 이중과세방지 협정(DTA)에 따라 체결국 기업에는 항공업과 해운업 소득면세

✓ 현금지원제도

- 녹색 및 지속성장 보조금 제도(녹색채권 발행비용 지원 등)
- 혁신기술기금(R&D 지원 등 18개 프로그램에 맞는 현금지원)

✓ 사이버포트(Cyber port) 인센티브

- 홍콩 남부에 위치한 사이버포트 內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 입지지원제도

- 특성화단지를 만들어 낮은 임대료로 장기 임대방식 지원



● 매우 방대한 현금지원 프로그램 운영

총 4가지 종류의 현금지원 제도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이 유형별로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



● 단순한 조세제도

내외국인 동일한 조세제도를 운영하며, 사업소득세, 재산세, 급여소득세만 있고, 판매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상속세가 없다.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수출입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투자 집적

홍콩 남부에 위치한 사이버포트(Cyberport)와 같이 핀테크(Fintech),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e-스포츠, 스마트리빙(Smart Living) 등 유망분야로 클러스터를 만들고 각종 지원을 통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 유도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2022)

4

시사점 및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1) 시사점

● 부산은 전체 경제 규모 대비 투자가 부진, 성장잠재력도 점차 약화

- 제조업 부문의 설비투자 비중 감소, 연구개발 투자 성장세 전국대비 미진
- 전국 100대기업 내 부산 소재 기업 부재, 1000대 기업 진입기업도 27개사에 불과
-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투자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
 - 투자가 활발한 첨단 산업 비중이 낮아 설비투자가 부진
- 지자체 차원의 투자가 인프라에 집중되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지원은 부족

● 최근의 지역 투자 유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지역 투자 집중

- 국내 기업 투자를 비롯해 외국인투자 또한 인프라와 인재가 풍부한 수도권, 인접 지역인 충청권으로 집중 → 최근 부산 유치 기업 중 수도권 유치 실적은 저조
- 첨단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 부족도 수도권 기업 유치 부진의 주된 원인
- 최근 정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300조 규모) 허용 조치도 지역 불균형 발전 우려 제기

(1) 시사점

● 부산 산업단지 향후 생산성 점차 둔화 예상, 산업단지의 고도화·효율화 필요

- 부산의 산업단지는 최근 10년간 전국보다 빠르게 성장한 만큼 향후에는 **개발 부지 한정, 노후화** 등으로 생산성 점차 둔화 예상
→ 산업단지 **고도화와 유희부지 효율화** 등의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투자 유치는 제조업에 편중, 일부 물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규모 투자위주**

- 최근 부산은 국내 및 외국인 투자가 증가세이나 업종 비중은 제조업 중심으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유치 활성화 필요**
- 또한, 최근의 유치실적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향후 산업생태계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과 첨단 기술 강소기업 유치 필요** → 부산만의 차별화된 전략 마련

(2)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① 부산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투자

- 세계 FDI 주요국들은 최근 투자규모 대비 고용창출 등 경제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업종 유치 주력
- 부산도 기획중인 메가 이벤트 및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고효용 · 고부가가치의 전략적 투자정책 필요

②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투자입지 제공

- 두바이 · 싱가포르 · 홍콩은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외국인 특성화 단지를 조성해 외국인 투자를 집적화
- 반면, 부산은 외국인 투자지역이 외곽에 위치, 추가 개발 부지도 부족한 입지 제공 필요
→ 도심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입지 제공 필요

③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및 공급

-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거점 결정요인 분석 및 한국의 유치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환경은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중 하나로써,
- 부산도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해 산업수요를 반영한 현장형 핵심인재 양성 및 공급 노력 필요

① 부산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투자

- 부산의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한 고효용 · 고부가가치 투자 유도

<2030 월드엑스포>

- ✓ 200 여개국 5천만명 가량의 방문객 유입
- ✓ 생산유발 : 380억 달러
- ✓ 부가가치 유발 : 160억 달러
- ✓ 일자리 창출 : 50만개



<가덕도 신공항>

- ✓ 해상 & 항공 물류 시스템 구축
- 동북아시아 물류 허브
- ✓ 생산유발 : 950억 달러
- ✓ 부가가치 유발 : 400억 달러
- ✓ 일자리 창출 : 50만개



<센텀2지구 개발>

-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여, 반송, 석대동 일원
- ✓ 규모 : 약 58만평
- ✓ 사업기간 : 2025(1단계), 2027년(2단계)
- ✓ 사업시행자 :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 ✓ 계획 :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부품소재 등 첨단 ICT 허브와 청년지식 창업지구로 조성



① 부산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투자

- 부산의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한 고효용 · 고부가가치 투자 유도

<에코델타 시티>

- ✓ 위치: 부산 강서구 강동동, 명지동, 대저동 일원
- ✓ 규모: 약 356만평
- ✓ 사업기간: 2012년 ~ 2023년
- ✓ 사업시행자: 부산시, K-water, 부산도시공사
- ✓ 계획: 약 7.6만명 수용, 주택 약 3만 세대 공급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 ✓ 위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內
- ✓ 사업기간: 2017년 ~ 2023년
- ✓ 사업내용: 파워반도체 집적화 단지 조성 (관련 기업 유치), 상용화 센터 구축 및 운영, 연구·제조 시스템 구축, 신뢰성 평가인증 시스템 구축, 파워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15분 생활권>

- ✓ 어반루프 조성
 - 가덕도 신공항-부산항-동부산 연결
- ✓ 그린 스타트 시티 조성
 - 15분 이내 모든 공공서비스 이용 가능



②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투자입지 제공

- 부산은 투자유치 및 미래기반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며, 도심내 공유재산 부지 및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투자자들 수요에 맞는 입지 제공 가능

① 장기 미활용 공유재산 부지 활용

- ✓ (목적) 장기 미활용 공유재산 활용,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 ✓ (대상) 접근성과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활용 공유재산

② 대학내 유휴공간 활용 기업 유치

- ✓ (목적) 입학정원 미달 등으로 대학내 유휴 공간 증가 예상, 우수 교수진과 연구인력 다수 포진, 이를 연계 활용한 우수기업 유치시 시너지효과 기대
- ✓ (대상) 대학별 업종, 분야 특성화 전략 필요

③ 첨단IT, 지식서비스업 임대형 건물 확보

- ✓ (목적) IT 등 첨단업종, 지식서비스업종의 경우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내 오피스형 건물 선호, 업종별 집적화시 시너지 효과 제고 가능
- ✓ (대상) 도심내 공실(사무공간 등), 휴폐업 공장·창고 등

④ 신규단지 (가칭)투자유치전략지구 지정

- ✓ (목적) 토지이용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중점 유치업종 탄력적 재구성과 이를 통한 특화 산업별 클러스터 조성 가능
- ✓ (대상) EDC, 북항, 센텀2지구, 향후 개발예정지(영도, 원도심철도시설부지 등)

(참고) 도심내 유희공간 활용 성공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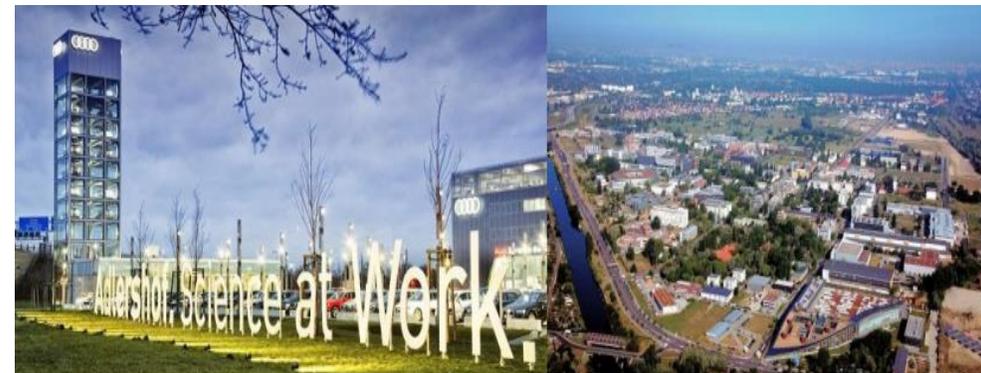
1 프랑스 스테이션 F

- 프랑스 13구에 위치한 스테이션 F는 2017년 도심유희시설인 철도차량 기지를 개조해 지어 진 세계 최대 규모(3만4천㎡, 약 1만285평)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간
- 과거 해외 기업과 투자자에 폐쇄적이었던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켜 프랑스를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 허브 조성하고자 각국 스타트업들에게 개방적이고 체계화된 창업환경 제공
- 3,000개 이상의 스타트업 데스크, 8개 이상의 이벤트 공간, 60개 이상의 회의실, 우체국, 은행, 팝업스토어, 30개 이상의 개인 샤워실, 카페, 레스토랑, 100개실의 공동 아파트 등이 있으며,
- 네트워킹을 위한 Share Zone, 업무를 위한 Create Zone 그리고 휴식과 식사를 위한 Chill Zone으로 나뉘며, 가까운 거리에 거주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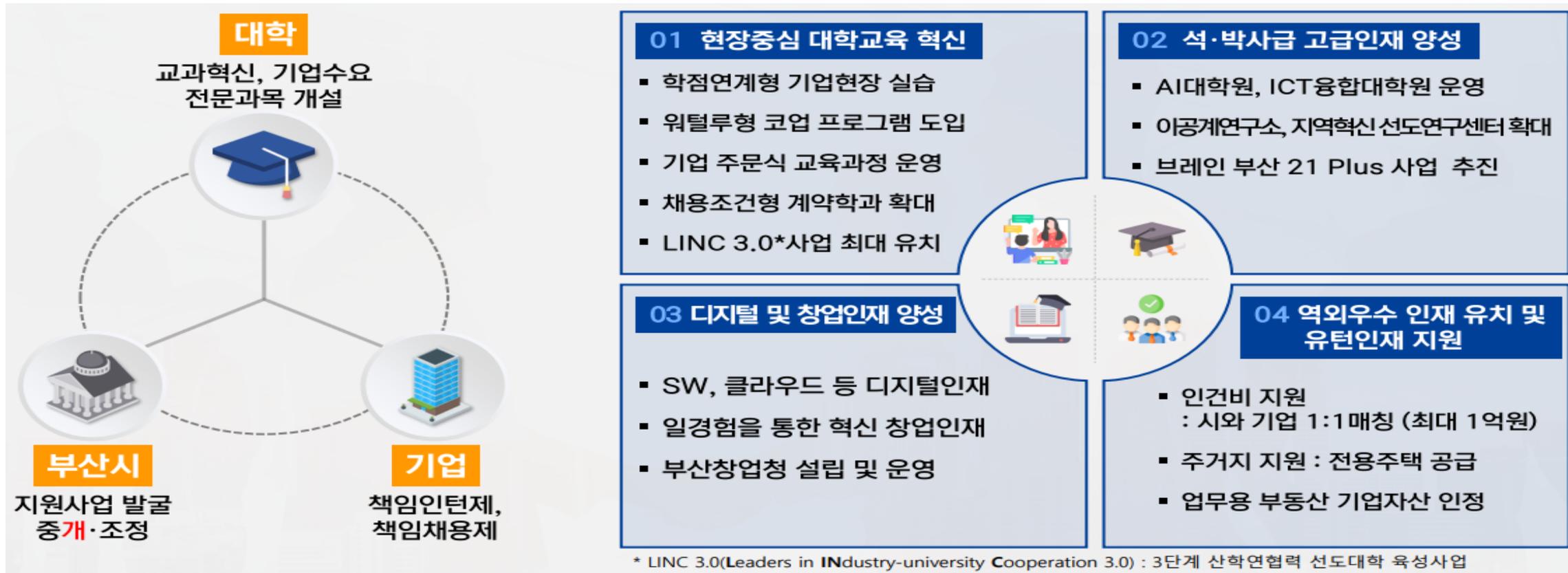
2 독일 아들러스호프 사이언스 파크

- 독일 베를린 시내로부터 약 15km 거리에 위치한 아들러스호프는 세계 각국에서 유능한 청년창업가들이 모여들면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세계 최고의 첨단과학단지
- 자생적으로 조성된 아들러스호프는 대학-연구소-기업가 등 상호간 교류·협력을 통한 기술 사업화 집적 단지로서,
- 동독에 포함됐던 이곳은 통일 이후 서독의 기술력에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게 되자 베를린 연방정부가 1991년 아들러스호프 유한회사 (현 비스타 유한회사)를 설립해 과학기술단지 로 새롭게 도약
- 독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산학연 연구단지로 대학-연구소 R&D 성과 중심 의 기술사업화, 기술혁신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등 구축 등 선순환 성장 가능



③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및 공급

- 기업과 대학이 함께하여 유능한 지역인재 양성 및 정착 유도
 - 산업수요를 반영한 현장형 핵심인재 양성·공급으로 지역 정착 유도 및 기업 성장 지원



⇒ 국가경영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수도권과 동남권의
균형발전 추구

⇒ 살고 싶은 도시 부산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부산 건설

Thank you
감사합니다